

해남 솔라시도 첫마을 조성...AI인력 주거단지 '속도'

구성지구 5개동·29층 규모 588세대...총사업비 2164억 5월 인허가 마무리·7월 분양 착공...2029년 상반기 입주

해남 솔라시도 구성지구에 국가 AI 컴퓨터센터 전문 인력과 기업 종사자 주거 여건을 뒷받침할 첫 주거단지가 들어선다. 전남도는 구성지구 첫마을 주택 사업을 본격화해 인공지능 산업 기반 조성하고 기업 도시 활성화에 필요한 주거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남군 신이면 구

총사업비는 2164억원이며, 사업 시행은 ㈜한양이 맡는다. 전남도는 국가 AI 컴퓨터센터와 연계한 산업 인력 유입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기업도시 내 초기 정주 기반을 갖춰 관련 기업 종사자와 전문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업은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구성지구 개발계획 변경 신청이 이뤄졌고, 올해 1월 초에는 ㈜한양이 해남군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후 1월 중순부터는 국토교통부 등 18개 기관 39개 부서를 대상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는 오는 5월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개발계획 13차 및 실시계획 10차 변경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5월 말에는 전남도 건축경관공동심의위원회 개최와 보완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말 모델하우스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해남군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7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같은 시기 분양과 착공도 함께 추진된다. 준공과 입주는 2029

년 상반기가 목표다.

이번 첫마을 주택 사업은 솔라시도 구성지구 전체 주택 공급 계획의 출발점이다. 구성지구는 기존 1만4400세대, 3만6600명 규모에서 2만4000세대, 6만명 규모로 확대하는 개발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첫 주거단지인 588세대 공급 이후에는 2단계로 레지던스형 주택 2000세대, 3단계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000세대 공급이 검토되고 있다.

레지던스형 주택 공급 시기는 첫마을 주택 분양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공

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공급속진지구 기업도시지구와 중복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함께 건의 중이다.

전남도는 솔라시도 구성지구 첫마을 주택이 AI 산업 거점 조성하고 기업도시 개발의 초기 정착 기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단지와 연구시설, 정주 공간이 함께 조성되는 등 AI인력 유입과 인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구성지구 개발의 속도를 가늠할 핵심 주거 프로젝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전남 자영업자 1년새 2만명 감소

광주 고용률은 회복...취업자 6000명↑ 전국 취업자 증가에도 청년 취업 줄어

광주·전남의 자영업자 수가 1년 만에 2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가데이터센터 호남지방데이터센터가 발표한 '3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 자영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명에서 13만9000명으로 5000명이 줄고, 전남은 29만5000명에서 28만명으로 1만5000명의 자영업자가 사라졌다.

광주 자영업자는 지난 2024년 10월 1000명 증가한 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전남도 지난해 3월 6000명 증가 후 계속 감소했다.

광주의 고용률은 61.2%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했다. 취업자는 77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6000명 증가했다.

실업자도 2만4000명으로 같은 기간 1000명 줄고, 실업률은 3.0%로 0.1%p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3000명, 14.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9000명, 2.7%), 건설업(1000명, 1.2%)에서 취업자가 증가했

다. 제조업(1만명, -8.9%), 도소매·숙박·음식점업(6000명, -4.0%), 농림어업(1000명, -8.5%)은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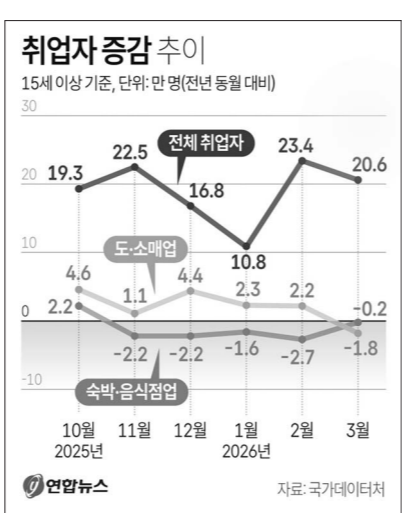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1만명, 7.3%),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5000명, 1.7%), 농림어업숙련종사자(1000명, 10.2%)가 증가했고, 관리자·전문가(6000명, -3.4%), 서비스·판매종사자(4000명, -2.1%)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1만1000명(1.9%) 늘었다. 이 가운데 상용근로자 1만4000명(3.1%), 일용근로자 1000명(2.7%)이 각각 증가했지만, 임시근로자 3000명(-2.1%)이 줄었다.

지난달 전남의 고용률은 65.5%로 전년 동월 대비 0.3%p 하락했지만 취업자는 100만1000명으로 2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6%로 0.3%p 상승했고, 실업자는 4000명 늘어난 2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2000명, 3.5%), 제조업(8000명, 7.2%), 전기·운수·통신·금융업(7000명, 9.6%)에서 증가했다. 농림어



가했지만, 임시근로자는 2000명(-1.0%), 일용근로자는 1000명(-2.9%) 감소했다. 이에 임금근로자는 총 1만4000명(2.3%)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다만 청년층은 41개월째 취업자 수가 줄고, 고용률과 실업률도 모두 악화하며 '고용 한파'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79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6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10만명대에 머물렀다가 2월(23만 4000명)부터 20만명대로 올라섰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24만2000명), 30대(11만2000명) 등에서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4만7000명 줄었다. 2022년 11월부터 41개월 연속 감소세다.

청년층 고용률은 43.6%로 0.9%p 하락했고, 실업률은 7.6%로 0.1%p 상승했다.

임재용 기자 djavody0316@gwangnam.co.kr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남지역 농·축협 6개 사무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 농축협, 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휩쓸어

전남 농축협들이 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지역 보험사업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은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전남지역 농·축협 6개 사무소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은 지난 한 해 동안 농업인의 실의 증대와 보험사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무소와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지역 농축협들은 사무소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내며 시상식의 중심에 섰다. 특히 서영암농협은 전국 최초로 연도상 6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전남 농업의 저력을 보여줬다. 나주축산농협과 흥양농협, 다시농협도 각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지역 보험사업 역량을 재확인시켰다.

사무소 시상에서는 종합부문 대상에 서영암농협과 나주축산농협이 선정됐고, 최우수상은 광양농협이 수상했다. 일반부문에서는 흥양농협과 다시농협이 대상을, 함평축산농협이 최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이날 시상식은 전남 한 해 동안 농업인의 실의 증대와 보험사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무소와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남지역 농축협들은 사무소 부문에서 고른 성과를 내며 시상식의 중심에 섰다. 특히 서영암농협은 전국 최초로 연도상 6연패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전남 농업의 저력을 보여줬다. 나주축산농협과 흥양농협, 다시농협도 각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지역 보험사업 역량을 재확인시켰다.

사무소 시상에서는 종합부문 대상에 서영암농협과 나주축산농협이 선정됐고, 최우수상은 광양농협이 수상했다. 일반부문에서는 흥양농협과 다시농협이 대상을, 함평축산농협이 최우수상을 각각 차지했다.

이날 시상식은 전남 한 해 동안 농업인의 실의 증대와 보험사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무소와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규 기자 photo25@gwangnam.co.kr

'NH오늘농사 2030 서포터즈' 농협중앙회, 청년 50명 선발

농협중앙회는 스마트 영농 플랫폼 'NH오늘농사' 확산과 청년층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NH오늘농사 2030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 세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디지털 농업 서비스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개 모집을 통해 총 50명을 선발하며, 이달 말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농촌에 관심 있는 2030세대로, 농업 종사자나 주말농장 참여자, 가족 농사 경험자, 농사 관련 동아리 회원 등은 우대한다. 접수는 19일까지 'NH오늘농사' 애플리케이션 내 구글폼을 통해 가능하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NH오늘농사' 온라인 홍보를 위한 SNS 콘텐츠 기획·제작을 비롯해 관련 주요 행사 참여, 농촌 일손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시각에서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디지털 영농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료자에게는 활동 지원금이 지급되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디지털 디바이스 기기가 시상된다.

'NH오늘농사'는 영농일지 작성, 농작업 관리, 농산물 시세 제공, 면세유 정보 안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마트 영농 플랫폼으로, 농업인의 편의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15일 영광군 모량면 일원에서 풍년 농사를 기원하고 영농 인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협 광주·전남본부, 농촌 인력난 해소 '총력'

영농지원 발대식...농촌 현장 일손돕기 지원

농협 광주본부와 전남본부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제히 영농지원 발대식을 열고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나섰다.

농협 광주본부는 15일 광주 평동농협 본점에서 '2026 범농협 광주본부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범농협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동상협력'의 정신으로 하나 돼 영농인력난 해소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지자체 관계자를 비롯해 농협 중앙회 및 계열사 임직원, 지역농협 관계자, 호남대학교 학생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본부는 발대식을 계기로 '행복

농촌봉사단'을 본격 가동하고, 영농철이 마무리되는 6월 말까지 관내 농촌 현장을 순회하며 10회 이상의 집중 일손돕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발대식 직후 참가자들은 인근 농가로 이동해 영농 지원 활동에 나섰다. 특히 대학생 봉사단이 함께 참여해 도농상생의 의미를 더했다.

같은날 농협 전남본부도 전남 영광군 모량면 일원에서 영농지원 발대식을 열고 현장 중심의 지원 의지를 다졌다. 행사에는 이광일 전남본부장을 비롯해 장재영 NH농협은행 전남본부장, 송광민 영광군

부군수, 장미영 광주대학교 부총장, 정혜숙 농가주부모임 전남도연합회장, 지역 농·축협 조합장, 대학생 봉사단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발대식 이후 조생양파 수확 일손돕기에 나서며 구슬땀을 흘렸다. 전남 본부는 인력증가센터를 통해 올해 30만명 규모의 인력 증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농번기 인력 공급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철호 광주본부장은 "범농협 임직원과 지역 대학생들이 뜻을 모아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한다"며 "집중적인 영농 지원 활동을 통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풍년 농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photo25@gwangnam.co.kr

"AI도시 계획 수립...행정·인허가 체계 확장"

광주연구원, AI 기반 건축·도시계획 활성화 방향 제안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도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과 예측 중심의 선제적 계획 수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서비스 구현의 필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와 복합적인 도시 문제를 다루는 건축·도시계획 영역에서는 AI를 활용한 분석·시뮬레이션과 전문가의 공간적 판단을 결합하는 새로운 계획 패러다임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광주연구원은 15일 '광주정책포커스' 제28호 'AI를 활용한 건축·도시계획 활성화 방향'을 발간하고, 광주시의 AI 도시 추진 여건을 진단한 뒤 관련 분야의 정책 활용 방향과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AI 허브 도시'를 비롯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AI 집적단지 구축, AX 실증벨리, AI 모빌리티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연계해 광역 단위 AI 산업 생태계 확장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AI 기술을 도시 공간과 행정 전반에 접목하는 'AI 도시'로의 전환 가능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더불어 광주시는 2023년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에는 우수건축자산 4개소를 지정하는 등 정책 실행력 측면에서도 선제적 성과를 축적해 왔다.

보고서는 AI가 제시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의사결정과 예측 중심의 선제적 계획 수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 서비스 구현의 필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도시계획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법규 검토, 설계 검토, 상하 및 사업성 분석 등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에는 에이전트형 AI를 적극 도입해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AI 도시 구현의 핵심은 단순한 데이터 축적을 넘어, 각종 보고서와 회의록, 통계, GIS, 도면, 민원 텍스트 등으로 분산된 정보를 표준화·구조화해 AI가 읽고 추론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부서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도시정책 전반의 일관성과 행정 협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와 행정 의사결정 과정에 AI 기반 지원체계를 도입할 경우, 사전 검토자료 요약과 과거 심의사례 분석, 법령 및 지침 정합성 검토, 정책 효과 시뮬레이션 등이 가능해져 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토 시간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photo25@gwangnam.co.kr